일 주 문



새해 삼보일배 정진

허운 제주 관음사 주지 스님은 1월 1일 정유년 새해 발원 삼보일배 정진을 실시했다.



제2회 어린이 단기출가

심산 부산 흥법사 주지 스님은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겨울방학 맞이 제2회 어린이 작심단기출가를 실시한다.



조계사 아함경 강의

원영 조계종 교육아사리 스님은 11일부터 10주간 매주 수요일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 교육관 4층 강의실에서 〈아함경〉 강의를 진행한다.

문체부 종무실장에 김재원 체육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종교 업무를 총괄하는 종무실장에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사진〉이 구랍 30일 임명됐다.

1963년 경남 사천에서 태어난 김 재원 종무실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0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장과 콘텐츠정책관,체육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동국대 신임 교직원 신행 연수

구랍 27~29일 수덕사서



동국대는 구랍 27~29일 수덕사에서 신임 교직원 신행연수를 개최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구랍 27일~29일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2016년 신임교직원 신행연수'를 봉행했다"고 1월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2015년 2학기와 2016년 1학기에 입사한 신임 교원 및 직원, 정각원 행정팀 직원 등 25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27일 입재식을 갖고 사찰예절 배우기와 덕숭산 산행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튿날에는 '동국대 건학이념과 조계종단'을 주제로 한 동국대 정각원장 혜원 스님의 법문이 진행됐다. 또한 서산 마애삼존불 · 보은사지 등 불교유적을 답사했으며,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의 소찬법문도 이어졌다. **신성민 기자**

〈바로 잡습니다〉 본지 1129호 B5면 도법 스님 소제목 '불암사 결사, 비판적 논의 필요해'를 **'봉암사 결사, 비판적 논의 필요해'**로 바로잡습니다.

"비구니연구, 結者解之 마음으로"

〈결자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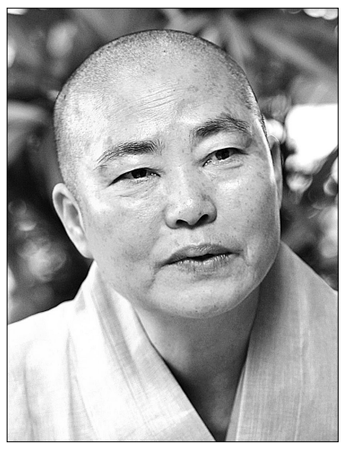
Interview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사진〉은 오는 2월 정들었던 교단을 떠난다. 1991년 중앙승가대 교수로 취임한 본각 스님은 화엄학의 대가로 26년 동안 화엄의 정수를 후학들에게 전했다. 스님이 중앙승가대에서 교수 소임을 보며 남긴 다른 족적 중 하나는 1999년 한국비구니연구소를 개원한 것이다.

2000년 초 중앙승가대가 김포학사로 이전하면서 학교 공간 사용이 허락되면서 연구소 활동이 본격화 됐다. 본각 스님은 연구소 소속 학인 스님들과 함께 전국의 어른 스님에 대한 녹취를 3년간 진행했다. 이 결과물이 2007년 출판한 〈한국비구니명감〉과 〈한국비구니수행담록〉이다.

이외에도 본각 스님의 한국비구니연구소는 비구니 스님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집대성했다. 〈신문기사로 본 한국 근현대 비구니 자료집〉과 500여 편의 학술논문과 교양논문을 모은 논문자료집 〈비구니와 여성불교〉를 내놨다. 또한 〈삼국사기〉,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에 게재된 비구니와 여성불교에 대한 기록들을 집대성한 〈한국 고 · 중세 불교여성 · 비구니 자료집〉은 한국 비구니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올해 2월 퇴임하고 금륜사로
한국비구니연구소 함께 이전
'비구니자료집' 5권 등 배포

"관련 자료 꾸준히 수집 · 편찬
비구니 역할 연구 진행할 것"

본각 스님은 최근 〈2001~2012년 신문기사로 본 한국비구니 자료집(5권)〉을 다시 출판해 그간 배포하지 못한 자료집을 사찰과 도서관, 언론기관 등에 전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좀 더 일찍 보내드려야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며 "최근 배포한 것은 2, 3차 작업 결과물이다. 현재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한국비구니연구소는 본각 스님의 퇴임과 함께 스님의 주석처인 금륜사로 이전한다. 스님은 "학교에 후배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지만, 짐을 안겨드리긴 미안했다"면서 "제가 시작한 연구이니 마지막까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비구니 승가 연구에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스님의 퇴임과 함께 연구소는 새 시작을 맞이하는 것이다. 향후 본각 스님은 비구니 승가에 대한 자료 수집과 현대적 역할 연구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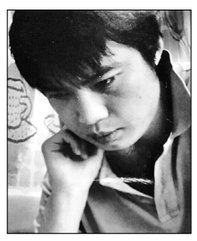
스님은 "금석문 등 고문헌과 현대 비구니 승가 활동을 정리하는 자료 수집과 현대 사회에서 비구니 승가의 역할을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게 향후 과제"라면서 "우선 퇴임 후에는 제 자신의 학문적 정리를 진행하고, 비구니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문학인의 산실' 동국대, 올 신춘문예서 기염

경향 · 서울 등 당선자 6명 배출… 소설 · 시조 장르 다양


염승숙


위수정


조현주


이가은


최현진


김서연

'명품 문학인의 산실'인 동국대가 올해 신춘문예에서도 강세를 보였다. 1월 2일 현재까지 6명의 당선자를 배출해 동국문학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는 평가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1월 1, 2일 발표된 일간지 신춘문예 당선자 명단에 △경향신문=평론 염승숙(문예창작 01) △동아일보=중편소설 위수정(문예창작 99) △서울신문=희곡 조현주(문예창작 97) △중앙일보=시조 이가은(문예창작 02) △한국일보=동화 최현진(문예창작 09) △경남일보=소설 김서연(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08) 등 동문 6명이 포함됐다"고 1월 3일 밝혔다.

동아일보 중편소설 부문에 작품 〈무덤이 조금씩〉으로 당선된 위수정 씨는 "이런 시국에 혼자 방에 틀어박혀 소설을 쓰는 것이 마음 편치만은 않았지만 내가 쓰는 글이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분투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그간의 시간을 털어놨다.

〈오늘만 같지 않기를〉로 서울신문 희곡 부문에 당선된 조현주 씨는 "누군가의 삶 속에 깊이 파고드는, 그들의 인생을 뒤흔드는 울림이 있는 희곡을 쓰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문학동네 신인상에서 소설 부문을 수상한 박상영 동문을 비롯해 여러 신인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장영우 동국대 국어국문 · 문예창작학부 교수는 "시조, 소설 등 창작 분야에서 평론이나 희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만해 한용운 스님과 서정주, 조정래의 계보를 잇는 동국 문학인들의 활약이 2017년 내내 이어졌으면 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한편, 동국대는 매년 신춘문예마다 뛰어난 문재(文才)들을 배출해 내며 명실상부한 최고의 문학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2009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언론사 신춘문예에서 총 8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바 있으며 2010년 3명, 2011년 4명, 2012년 4명, 2013년 6명, 2014년 4명(중앙일보 신인문학상 포함), 2015년 9명의 동문이 등단하는 등 해마다 '동국문학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운사, 철야정진으로 새해맞이

송년 작은음악회로 한 해 정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구랍 31일 지장보궁에서 '송년 작은음악회'를 열고, 철야정진하며 차분한 새해를 맞았다. 선운사 대중스님과 불자들은 자정을 기해 범종타종 행사를 갖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 희망을 기원했다. 주지 경우 스님은 "새해에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되도록 선운사 대중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광사 기본교육 70기 수료식

지홍 스님 100여 수강생에 계 내려



서울 불광사(회주 지홍)는 구랍 24일 서울 불광사 보광당에서 불교기본교육 70기 수계 ·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계사로는 회주 지홍 스님이 나서 100여 수강생들에게 계를 내렸다.

지홍 스님은 "연비의식을 통해 계율을 잘 지키고 부처님의 제자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며 활발한 신행활동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아우내은빛福, 노후 난방시설 보수

웰클린과 지역 내 독거 어르신 가정 세관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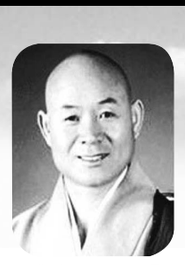


아우내은빛복지관(관장 이수경)은 1월 5일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소독방역 · 배관클리닉 전문기업 웰클린(대표 김선중)과 함께 복지관 재가자 10명 가정의 노후된 보일러와 배관청소를 실시했다. 웰클린 측은 "노후된 보일러로 열효율성이 떨어지는 집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이 안쓰러웠다"며 "2월까지 시설보수를 실시하고, 이후엔 소독방역 재능기부도 함께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 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2월 28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